

btn '부처님의 발자취...' 해외로케 75일간 인도·파키스탄 현지제작 10부

불교TV는 내년 부처님오신 날 특집으로 방영 할 특집 다큐멘터리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내년 1월 1일부터 75일간 인도전역 및 파키스탄 현지에서 제작한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성도, 전법, 열반에 이르는 전과정을 부처님의 일대기에 나타난 불교유적을 직접 답사하여 치밀한 고증으로 구성 할 계획. 50부 10부작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는 제1부 '탄생의 땅-룸비니' 2부 '잃어버린 성-카필라바투' 3부 '구도의 길-진리를 찾아서' 4부 '깨달음의 새벽-붓다기야' 5부 불교의 시작-사르나트' 6부 '전법의 근거지-왕사상' 7부 '대승원-가일원장사' 8부 '유녀가 바친동산-바이살리' 9부

'아아, 사라쌍수-루시나기라' 10부 '영원한 가르침-경전결집' 등으로 기획됐다.

담당PD 신동우씨는 "지금까지의 불교유적지 프로그가 관광소재차원이었다"며 "경전에 근거한 철저한 고증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재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BBS '찰나회' 창립전

BBS 사진동호회 '찰나회' (회장 박시하) 창립전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렸다.

이날 전시회에는 '논네린 산사' '합정' '해인사의 바루공양' '사천왕상' '한강유등제' 등 각 사찰과 향토마을, 해변가를 배경으로하는 사진작품 50점이 전시된다.

btn 방송시간 연장

불교TV 방송시간이 지난 1일부터 대폭 늘어났다.이전 방송시간 확대는 순환으로 편성, 방송시간을 하루 4시간 연장한 셈이다.

중전 8시간 30분이던 평일방

송이 12시간 30분으로 조정되고, 12시간 30분이던 주말방송이 13시간 20분으로 늘어나 주간 총 89시간을 방송한다.

이전 방송시간 연장은 낮방송을 함으로써 방송시간편성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불자시 청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영화 '카루나' 설날 개봉

통일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목)가 지난달 18일 남양주 한국영화 종합촬영장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함께 만나는 장면 촬영을 끝으로 1년간의 촬영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사진>

'카루나'는 한국영화 최초의 동고연지 촬영, 여주인공 육소시 사살 등 슬픈 화제를 낳았으며 특히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한민족이 하나되는 장면모사가 탁월해 영화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카루나'는 호주 오디오 락에서 돌비디지탈 녹음후 음반작업이 끝나는 12월경 시사회를 갖고 설날인 내년 2월19일 개봉 할 계획이다.

합창단 초청 설명회

불교TV는 지난달 24일 15층 강당에서 서울·경기지역

60여개 합창단장 및 합창단 임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TV 설명회 및 찬불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찬불가 보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불교합창단 단장 및 임원들은 "찬불가보급을 위해 불교TV 프로그램제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BBS 6일 송년 대법회

불교방송은 오는 6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사찰순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송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법회에는 월운, 해창, 현각, 일면, 덕신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태고종 종헌종법개정 '개혁박차'

총무원장·총회의장·사정원장 선출 지도부 개편

한국불교태고종이 전격적인 종단지도부개편과 종헌종법개정을 단행 중종새신의 개혁 불사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태고종은 지난달 28일 제9대 중앙총회개원 및 제7회 정기 중앙총회를 총무원 중앙불교회관에서 갖고, 총무원장에 해초, 총회의장 금담, 사정원장 법장스님을 새로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7면>

이같은 3부수장 선출은 종단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발판다지기로 비추

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제9대 총회의원중 조선의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태고종 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관측해 지배적이다. 이날 총회에서 전격 거론된 총무원장 교체문제 역시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열망이 반영돼 큰 압음없이 단행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태고종은 새로 선출된 3부수장을 중심으로 종단의 개혁방향을 명확적으로 수립, 완벽하게 이끌어내려는 방

침이다.

태고종의 종단개혁은 작년 11월 69회총회를 발판으로 1년 동안 종단발전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종단개혁안을 제도적으로 마무리짓는 종헌종법개정과 관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태고종의 개혁안 통과와 인사개혁은 거들수 있는 기초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에따른 태고종도들의 참여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

태고종 안팎의 견해다.

이밖에도 이번 중앙총회는 인천 용공사 성역화사업, 종중연구 및 종전편찬,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96년도 사업계획, 44억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김중근 기자>

내년예산 51억원 책정 총지중, 교양대 설립도

불교총지중(총무원장 안효강)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제55회 총의회를 개최, 96년도 예산 51억원을 확정했다.

불교총지중은 이번 총의회에서 교양대학설립, 사원신속복사(부산 경각사·삼밀사), 관정수계식등 9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총의회는 총무원 예산건립부지 매입의 건, 서울관성사 도시계획의 건 등이 논의됐다.

통일·문화사업안 확정 태고종 한불청 총회서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는 지난달 26일 은평구 불광사에서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 85주년 기념 참나청소년 및 지도자 통일문화예술대전 개최, 만해선사 추모법회 등 96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18대 회장에 도각스님을 재선임하고 수용스님, 권혁중씨를 부회장에 각각 임명했다.

네팔 룸비니에 한국사원 첫 건립 대성 석가사 6일 요사채 기공식

통일신라양식 범당불사 16억예산 투자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통산 국제사원 구역내에 최초의 한국사원이 건립된다.

용성스님의 유혼 10조를 받

는 도문스님 원력으로 오는 6일 기공식을 갖는 대성 석가사 건립사업은 대성석가사 1층으로 8천평의 부지에 요사채 1층 3백 50여평을 기공한다. 요사채의

전체규모는 2층7백여평. 대성 석가사불사는 앞으로 5년여동안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큰법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지 주민들과 불사를 하고 있는 법신스님은 "일본·베트남·태국등 불교국가들도 함께 '룸비니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성 석가사 건립불사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도문스님을 필두로 대성사 총무 무진스님, 대각사 청성스님, 한명국 대성사 신도회 부회장, 건축을 맡은 네팔 코넬라코사장 등 1백여 한국불자가 동참한다.

특히 30여명의 기자단이 취재와 인도순례를 갖게 돼 시선을 끌고 있다.

지구촌 불교

장경연구소, 예불음악 인터넷 제공

아침 예불음악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상에 제공된다.

해인사 고려대장경 연구소(이하 '장경연구소')가 세계최초 인터넷에 띄운 아침 예불음악은 종성 예불반 반야심경 등으로 구성되어 반야심경 경전해설이 삽입되어 있다.

아침 예불음악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Real Time Audio' 및 넷스케이프 등의 인터넷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장경연구소 인터넷 주소는 <http://sol.nuri.net/~hederein>



티벳출신 여섯살 소년 중국서 판첸라마 추대

중국정부는 지난 11월29일 티베트 나구현 출신 가아인케인 노르부(6살·사진)를 11대 판첸 라마로 추대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발표는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지난 5월 추대한 판첸라마 계통 초예기(6살)를 전면 부정할 것이어서 티베트 독립운동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판첸라마는 달라이 라마에 이어 티베트 불교 제2인자이다. 판첸은 범어와 티베트어를 합한 말로 '위대한 학자'란 뜻이다.

지난달 30일은 27번째 맞는 군승들의 생일날이었다. 이날 육해공군 군승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자축연을 벌였다. 더구나 군승 초창기부터 군포 교 초석을 다진 임봉준법사의

군인불신에 대한 불만도 아니 다. 군승들의 마음 한켠에 드리워진 어둠은 '시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군승의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고 총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종단으로부터 찬방신세를 받고있으니 스님이나 신도들 사이에서도 어정쩡한 입장이다.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가자도 아닌 현대판 비승비승인 셈이다. 종단일부에서는 군

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승의 위상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군승들의 생일날에도 감동무소식이다.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 다. 군승은 곧 그물코 비유되곤 한다. 군승의 사기가 이렇 도나니 황금어장은 그림의 떡이 아닐수 없다.

"종단에서 군포교라고 하여 25년간 혼신을 다해 뛰었습니다. 이제 종단에서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합사에서 출가하여 군포교의 소임을 마치고 산문으로 들어가려는 청정비구 임봉준법사의 뒷구멍 비스한 한마디가 군승들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목탁 소제

이준엽 <취재1부 차장대우>

직에서 포교와 수행을 하는 스님이다. 종단에서도 군포교를 위해 스님을 선발하여 파견했다. 그러나 군승들은 한결같이 종단으로부터 스님으로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백여 명의 승려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비승비승'

승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스님이라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종단은 지난 1984년 '포교를 위해 군승은 결혼을 할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군승단은 그동안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군승특별교구설치를 요구해 왔다. 군포교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3권

대지관좌선법

전5권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546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사기(世宗)가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錄 金無得 註釋

불기 2540년(丙子年) **신년 축하 광고 안내**

다사다난 했던 올해년을 보내면서 새삼 삼보의 가르침에 두손모아 공경을 표합니다. 본지는 불기 2540년(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특집 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 하는 광고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무 동참해 주시어 한해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신년축하광고
- 접수마감: 95년 12월 16일
- 규격 및 단가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광고국
- 1) 종단: 가로 9cm x 세로 17cm 기준, 25만원
- 2) 본사: 가로 85cm x 세로 6cm 기준, 15만원
- 3) 말사: 가로 7cm x 세로 4cm 기준, 5만원
- 4) 불교관련업체: 위 규격기준, 선택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 FAX (02) 737-0697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관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의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5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3권

대지관좌선법

전5권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546